

▲ 루디아선교센터 개관식 마무리 후 주요 내빈들이 모여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 홍보실 제공)

## 신앙과 학문, 나눔이 공존하는 루디아선교센터의 시작

4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도서관 옆 루디아선교센터(구 자유열람실)에서 루디아선교센터 개관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는 한병수 선교봉사처장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를 함께 불렀다.

다음으로는 전주대학교발전목회자협의회 회장인 서화평 목사가 대표 기도를 맡아, 루디아선교센터가 우리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 되길 기원했다. 이어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다.

설교는 선교지원실 특임교수 이진호 목사가 맡았다. 그는 위의 성경 구절 속 인물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신앙과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루디아의 모습이 오늘날 루디아선교센터가 지향하는 비전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

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진배 총장은 "이곳이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학생들이 복음의 가치를 배우고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의 말을 전했다.

루디아선교센터 개관에 기여한 고액 기부자 전지희 집사는 "교내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루디아선교센터는 앞으로 따뜻한 돌봄과 섬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전주대 홈페이지 개편, 내 손 안의 진로·진학 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리 대학 공식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개편은 입학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단과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 등 총 80여 개에 이르며, 사진 전용 아카이브 홈페이지 또한 새롭게 구축했다. 이번 개편은 진로·진학 서비스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입학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진로 전용 탐색 도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도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발견하고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심사와 개인의 장점 및 목표를 자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42가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추천 직업군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장애 학생의 진로·진학 정보 제공 등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전자점자

솔루션을 전국 대학 최초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 웹 접근성 인증(WA)을 획득해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유학생도 보다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번역 기능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장벽을 낮췄다.

대표 홈페이지는 메뉴 구조와 기능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진학 정보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학과별 마스크트를 활용해 대학 안내 페이지를 개편함으로써,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 측면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수강편람이나 기타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PDF 뷰어 기능도 도입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였다.

단과대학 및 각 학과 홈페이지는 학과별 맞춤형 디자인을 활용해 단과대학에서 학과로 이어지는 하이퍼링크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학과 홈페이지 또한 메인 화면에서 손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퀵 링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학과별 커리어로드맵 페이지를 개설하여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커리어로드맵 PDF와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의 일환으로 사진 전용 아카이브를 새롭게 구축했다. 사진, 영상 등 미디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내 구성원 누구나 학교 관련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대적인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학생들의 서비스 편의와 진로·진학 정보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비 신입생 대상의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은 입학 후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과 안정적인 대학 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준수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신 트렌드 반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 제13회 미래전북포럼 성료, “전북,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대학 온누리홀에서 ‘국가첨단산업전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을 주제로 제13회 미래전북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우리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학내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포럼은 김상진 산학협력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의 강연과 패널 토의로 구성됐다. 박진배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비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포럼이 전북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병건 회장은 바이오 기술의 수출 지속과 제품화 달성, 항노화 등 차별화된 분야의 집중 육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이신두 이사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산업 지속 성장」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마지막으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부원장의 「AI/DX 기반의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화」 강연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는 연세대학교 민동준 명예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기반 구축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비나텍 대표 성도경 이사, 김봉기 부원장, 전북대학교 송양호 교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오택립 도민안전실장이 참여해 지·산·학·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제13회 미래전북포럼 성료 후 주요 내빈이 마무리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 전주대학교,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종합우승... 2년 연속 정상

우리 대학 레슬링부가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대학 레슬링 최강자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대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우리 대학 총 12명의 출전 선수 중 절반이 메달을 따내는 등 전반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그레코로만형 67kg급에 출전한 운동처방학과 4학년 손태양 선수는 모든 경기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에도 이름을 올리며 개인적으로도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손태양 선수는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하여 굉장히 기쁘다.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김윤호 감독님과 류한수 코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 레슬링부는 꾸준한 훈련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 레슬링계에서의 영향력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 제43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를 마무리하며 함께 포즈를 취한 레슬링부 학우들 (사진 | 사)대한레슬링협회 제공)

| 김소리 기자 (sorikong02@jj.ac.kr)

## 인문콘텐츠대학, 벚꽃과 함께한 ‘블루밍 데이’ 축제

지난 4월 8일과 9일, 제21대 ‘결’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가 함께 주최한 ‘블루밍 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인문콘텐츠대학은 올해부터 신입생 통합 모집이 시행되면서 학과 선택을 앞둔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와 소통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의 전공 탐색을 돕고, 신입생과 재학생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1일 차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결’ 학생회는 진리관 일대와 믿음관을 이용하여 간단한 미션과 컵밥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실과 각 학과 학술실, 해치라운지에 배치된 QR 코드를 찾아 학교 관련 퀴즈를 맞추면 컵밥을 증정하며 신입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와 각 학과 공간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학우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었다.

2일 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리관과 학생회관 사이의 농구장 일대를 이용하여 부스를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운영 부스에서 팸플릿을 수령한 뒤, 인문콘텐츠대학에 소속된 7개 학과 부스를 방문해 학과별 체험 활동과 게임을 즐겼다. 체험을 완료할 때마다 스탬프를 모을 수 있었고, 7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은 참가자에게는 상

품 응모권이 제공되어 풍성한 혜택도 함께 했다. 각 학과는 학과 고유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준비해 신입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도 제공했다.

학과 부스 이외에도 ‘결’ 학생회에서 준비한 릴레이 게임 부스가 운영됐고, 축제에 참여한 학우들이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슬러시 증정 이벤트와 쥬러스,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등도 준비되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신입생회비를 납부한 인문콘텐츠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신입생이 학교와 소속 단과대학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결’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장 유강민 학우는 “비바람 등 다소 어려운 날씨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문콘텐츠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하여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 봄날의 캠퍼스, ‘연플리’와 함께한 특별한 하루

우리 대학 경영대학 학생회 ‘결’이 주최한 봄 축제 ‘연플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월 1일 자유관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학과 부스 운영과 이벤트를 통해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인기 웹드라마 ‘연애플레이리스트(연플리)’를 콘셉트로 한 이번 봄맞이 이벤트는 사랑을 테마로 한 다양한 미니게임과 함께, 유명한 봄노래를 패러디한 부스들이 열려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경영학과의 ‘사랑은 경영 다방에서’, 부동산국토정보학과의 ‘우연히 부동산’, 금융보험학과의 ‘금보 사랑 벚꽃 말고’, IT금융학과의 ‘IT, 봄인가봐’ 등이 운영됐다.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었으며, 낮에는 학과별 부스가 운영되고, 밤에는 영상물 상영 및 야시장이 마련되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각 학과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

이 진행됐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경품 이벤트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주간 부스 운영 시간 동안 응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 30분 자유관 후문에서 추첨을 진행했으며, 애플워치 SE 2세대, 에어팟 4세대, 인스탁스 카메라, 배달의 민족 쿠폰 등을 당첨자들에게 전달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벚꽃이 활짝 핀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고, 밤에는 야시장까지 즐길 수 있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소장 인터뷰

# 공존의 인문학, 고전에서 오늘을 배우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고전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의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소의 철학과 활동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고전학연구소 소장인 변주승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고전학연구소와 이를 이끌고 계신 교수님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교수이자 한국고전학연구소 소장인 변주승입니다.**

제가 늘 고민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역사과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사 연구를 잘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연구하자. 둘째,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이 하지 않는 분야를 특화하자. 그래서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고전 번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전이라도 읽히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번역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화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학문적 자산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고전을 통해 인문학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맡고 있는 연구의 핵심입니다.

**Q.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설립 이후 지난 15년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연구소가 중요하게 여겨온 핵심 이념이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고전의 힘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길을 열자'라는 것이 우리 연구소가 꾸준히 붙들고 있는 중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의 언어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풀어냅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고전이 전하는 오래된 지혜를 오늘의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후속 세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20대, 30대 젊은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해요)'라는 말이 유행하고, 인문학이 점점 외면받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학문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연구소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소 이름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큼니다. 전주에 있고, 전북에 있는 지방 사립대의 연구소지만, 이름은 '한국고전학연구소'입니다. 단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인문학의 중심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름에 걸맞게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문학 연구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Q.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13집 발간, 올해 초 진행된 국내학술대회 개최, 교양총서 제7권 『전북의 역사와 공존의 인문학-저항, 통제, 공동체』 발간 등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공존'이라는 공동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신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공존'이 절실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꾸 이기고 이기려 하잖아요. 내 진영, 내 지역, 내 편. 이런 구도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고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름에도 함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연구 주제를 '공존'으로 삼았습니다.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종교와 종교, 계층과 계층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문학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피내는 수많은 책과 연구 속에 녹아 있는 철학입니다. 특히 '공존의 인간학 시리즈'는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집필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전이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를 지속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게 꼭 성경이든, 불경이든, 공자님의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문학이 사라진다면, 사람을 위한 길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 사람의 도리, 공동체 안에서 삶의 방식, 사람답게 사는 법을 고민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문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은 오래된 텍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사람에 대한 고민은 더 절실해집니다. 저는 이 시기가 세계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이자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전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다시 꺼내어 보고, 인문학이 사람 중심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그런 길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통해 우리 삶을 더 깊이 돌아보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Q.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연구소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이제 우리 세대는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문학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대한민국 인문학의 버팀목이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주대학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연구소가 단지 '지방의 연구소'로 머무르지 않고, 전국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 연구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나 전주대 가서 인문학 할래'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등대 같은 존재, 밤하늘의 별빛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전 번역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전라도 지역의 인문적 문제에 더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의 장으로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입니다. 이제는 고전 인문학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인문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연구소,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심각해진 지구온난화

# “봄꽃 개화 시기 변화, 생태계와 경제에 경고 신호”!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봄꽃의 개화 시기가 불규칙해지면서 생태계와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벚꽃과 같은 대표적인 봄꽃은 최근 몇 년간 기온 상승으로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올해는 꽃샘추위와 이상기후로 인해 개화 시기가 지역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지게 되며 혼란을 초래했다.

벚꽃은 따뜻한 기온과 충분한 일조량이 지속될 때 개화하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개화 일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와 잦은 비로 인해 벚꽃이 평소보다 늦게 피거나 제대로 피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벚꽃 등의 봄꽃 개화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봄꽃 축제를 계획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개화 시기의 불확실성은 단순히 자연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벚꽃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꽃이 예상보다 늦게 피거나 빨리 지면 준비된 일정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전남 신안군은 2월 28일 개막 예정이던 ‘제1회 섬 흥매화 축제’를 3월 6일로 연기했다. 한파로 인해 매화 개화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의 ‘탐매축제’ 역시 2월 22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됐으며,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향제’는 기존의 개화 예측일 기준에서 만개 예상일 기준으로 변경해 개막일을 3월 28일로 늦췄다. 특히 창원시의 ‘진해군향제’는 매년 약 4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2,6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지만,

올해는 벚꽃이 만개하지 않아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 곳도 있지만, 반대로 빨라진 지역도 나타났다. 전북 지역은 올해 벚꽃이 지난해보다 8일 먼저 찾아왔다. 평년보다 12일 빨리 개화하며 1921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지역별로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후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계절은 봄으로, 벚꽃의 개화 시기가 당겨지는 현상은 기후 위기의 뚜렷한 신호다. 기상청이 지난 109년간(1912~2020년) 기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봄철 기온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  $\pm 0.26^{\circ}\text{C}$ 로,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봄꽃은 순차적으로 개화하며, 곤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분 활동을 돕는데, 최근에는 벚꽃, 진달래, 개나리가 동시에 피는 등 계절 현상이 뒤엉키고 있다. 이는 곤충들의 활동시기와 맞지 않아 식물의 번식률을 떨어뜨리고 곤충 개체수 감소를 초래한다. 꿀벌의 실종 사례도 이러한 이상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화 시기의 불규칙성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벚꽃 개화 시기의 변화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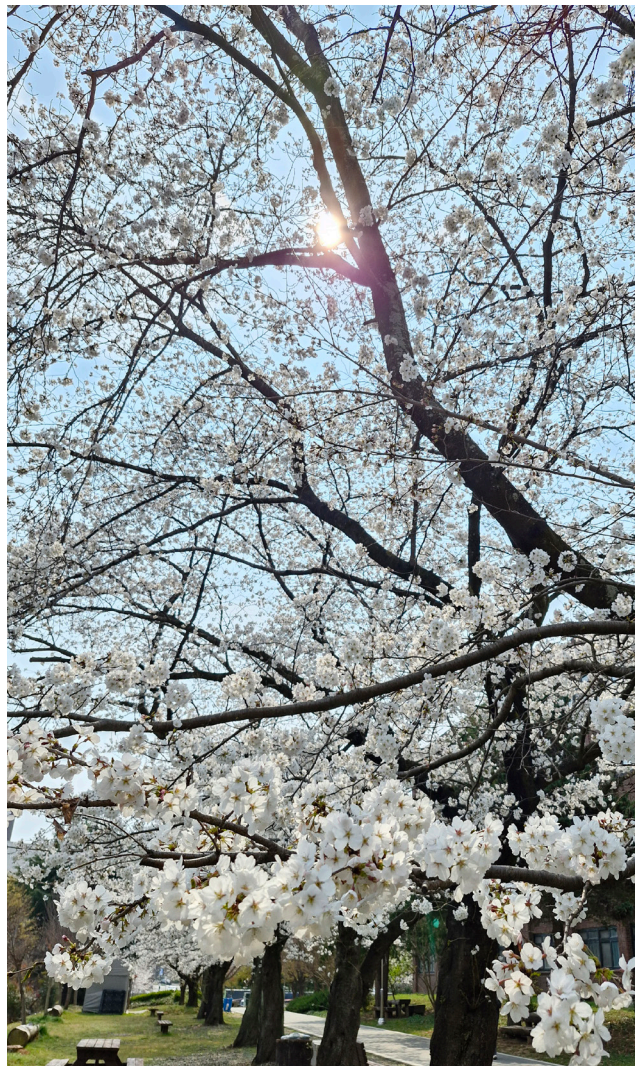
## 벚꽃 독자 사진 투고

관광경영학과 조교 남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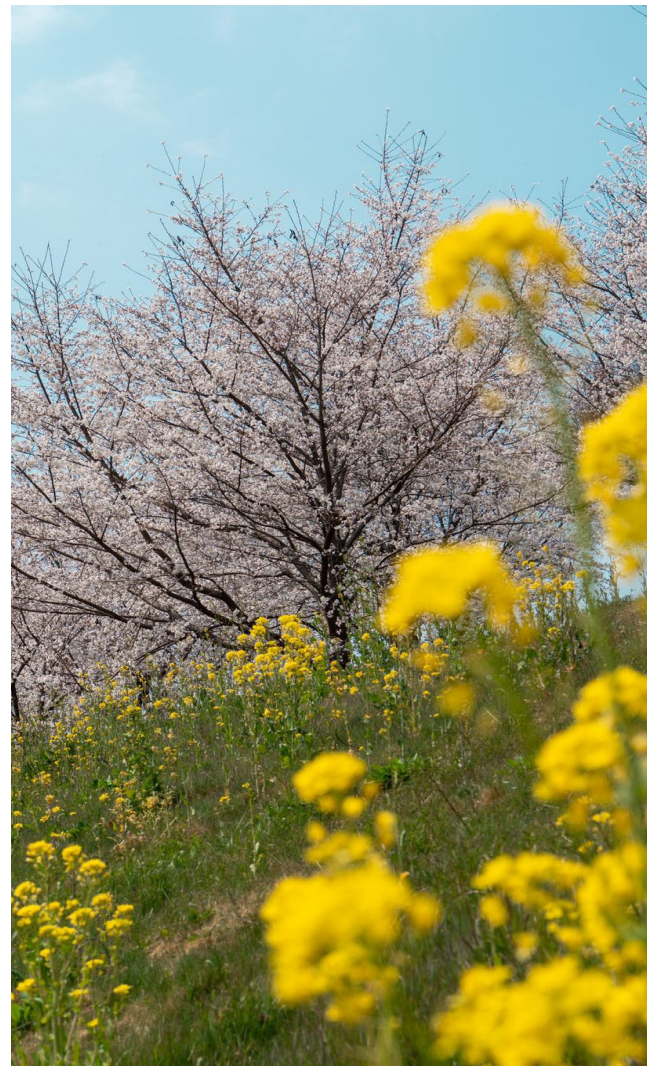
▲ 학생회관

상담심리학과 202511863 원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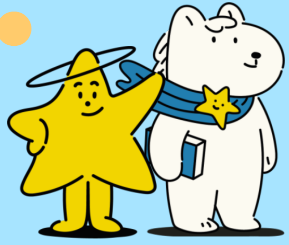
▲ 평화관

컴퓨터공학과 202068004 김규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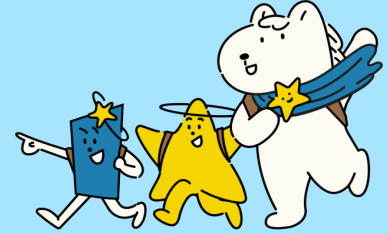


▲ 대운동장

자유전공학부 "전공, 어떻게 고를까?"



# 통합 모집 신입생을 위한



## 전공 선택 가이드

우리 대학은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학 통합 모집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Residential College 센터(RC센터) 센터장 박성희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RC센터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Q1.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RC센터를 이끌고 계신 박성희 교수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RC센터장 박성희입니다. 저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로서 약 20년간 수학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진로 지도에도 힘써왔습니다. 현재 RC센터를 이끌며 우리 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협력적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RC센터가 올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학내 구성원들 중에는 RC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RC센터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RC센터는 학생들이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며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특히 교수-선배-후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전주대만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학생 수요 중심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면적 학사지도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3. RC센터는 선배 학습 멘토, 사제동행 지도교수, RC지원교수, 진로지도사(CA)와 신입생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들었습니다. 사제동행 지도교수와 RC지원교수의 차이 무엇인가요?**

**A.** 사제동행 지도교수는 RC공동체 내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확산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돕고,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리더십' 교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우리 대학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RC지원교수는 RC센터의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지원 서비스를 관리하며 공동체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 즉, 사제동행 지도교수가 개별 학생과 공동체에 초점을 둔다면, RC지원교수는 센터 전체의 운영과 시스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4. 현재 RC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선배 학습 멘토링, 진로 탐색 워크숍, 문화예술 체험 활동, 그리고 사제동행 지도교수와 함께하는 공동체 선택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주대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5.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진로나 학업 방향 설정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RC센터의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RC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업과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과 활동을 기획해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공동체 선택프로그램'과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공 탐색 집단상담이나 기업 탐방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도 있으며, 오는 4월 30일에 열리는 전공박람회에 참가한다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정보도 얻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6. 자유전공학부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A.** 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선택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봉사, 인턴십, 향수 공방, 하우스 영화제, 독서토론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주대만의 협력 정신을 체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7. 현재 RC센터가 개관한 지 약 한 달이 되었는데,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RC센터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주대 문화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한 달여 생활하면서 각 개인의 특성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이루어 상대 공동체와 경쟁하는 '공동체 체육대회'와 다른 공동체와의 경쟁심을 해소하고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가든 바비큐 파티'도 기획 중입니다. 또한 4월 30일 전공박람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공과 진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이 협력적 학습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과 RC센터 구성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자유전공학부 학생 여러분, RC센터는 여러분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업과 진로를 탐색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체 선택프로그램과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한층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RC센터 구성원 여러분께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공 선택 가이드

올해 인문콘텐츠대학과 경영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통합전공 제도에 따라 2학기에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각 단과대학의 전공들을 소개하고,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기 위해서는 각 학과의 교육 목표와 졸업 후 진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대학메뉴에서 단과대학을 선택하면 커리어 로드맵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학과별 소개, 목표, 진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흥미와 적성이다. 희망 전공이 본인의 흥미와 잘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로 전망이다.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직종이나 분야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전공마다 요구하는 학업량과 난이도가 다르므로 개인의 학업 성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유전공학부 및 통합전공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선택의 폭이 넓어 오히려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전공 선택은 자신의 진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정보 수집과 고민을 통해 신중히 선택하기를 바란다.

우리 대학의 학생 지원 허브

# 학생성공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생님들의 이야기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진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학생성공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실질적으로 돕는 핵심 공간이다. 두 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센터는 스타센터 2층 컴퓨터센터 구역에 위치해 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면 보이는 학생성공라운지 오른쪽 241호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242호에 학생성공센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학생성공센터 윤평강·황주희·정지은 선생님



**Q1.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성공센터에 근무하시는 담당 선생님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성공센터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윤평강 과장입니다. 함께 참석한 황주희 선생님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승인과 개설, 관리를 맡고 계시고, 정지은 선생님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평소 학생들이 원만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 지원 및 역량 개발에 힘쓰신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생성공센터의 주요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학생성공센터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강화 및 학생 만족도 제고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유전공학부 신설 및 경영대학, 인문콘텐츠대학의 통합 모집으로 학생 자율권 및 선택권이 더욱 확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성공센터는 재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니다.

**Q3. 현재 우리 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SUPER 핵심역량진단이 궁금합니다. SUPER 핵심역량이란 무엇이고, 이 진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A.** 전주대학교의 SUPER 핵심역량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반드시 키워야 하는 5가지 핵심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졸업 후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PER라는 명칭은 각 역량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S는 영성과 인성, U는 의사소통, P는 자기개발, E는 창의융합, R은 +형 협력을 뜻합니다. SUPER 핵심역량진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SUPER 핵심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돼 졸업 후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onSTAR시스템에서는 진단 결과 리포트를 확인하거나, 진단을 바탕으로 부족한 역량 혹은 본인이 설정한 관심 기반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Q4. 학생성공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학생들에게추천하고 싶은 센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생성공센터는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큰 비전으로 출범했습니다. 학생성공센터는 대학 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학생 개개인의 진로, 흥미, 필요에 맞춰 연결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학 생활 중 궁금증이 생기거나, 진로, 학업, 대인 관계 혹은 경제적 문제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생성공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Q5. 학생성공센터는 학생들이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인 셈이군요. 그렇다면 센터의 향후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추가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학생성공센터는 학생 중심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학문적, 개인적,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과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기반한 <학생성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에 따른 초 개인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ONE-STOP행정서비스>를 통해 교내 유관부서뿐 아니라 교외 전문 기관과도 연계한 진로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학생 성공을 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선배 모델들을 발굴해, 성공

과정과 스토리를 들려주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업한 선배에게 듣는 특강이나 이제 막 취업해 합격의 기쁨을 맛본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진로토크 콘서트, 학생들의 성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신의 준비 과정을 발표하는 성공스토리 발표회와 그 내용을 담은 사례집 발간, 대학 생활에 적응한 선배와 이제 막 대학에 적응하는 신입생들을 매칭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우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학내에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센터 이용에 있어 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학생성공센터는 이제 막 신설된 신입생 같은 부서로 지금은 막 걸음마를 댄 단계이지만, 학생 여러분이 들려주는 고민과 의견,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센터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도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들의 편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학생성공센터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오민영 선생님



**Q1.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담당 선생님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민영 선임 취업지원관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우리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진로상담, 취업 컨설팅, 진로 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진로, 취업 분야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의 주요 설립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우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교육가치창출 1위, 기독교 명문사학'이라는 우리 대학 비전에 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단계인 저학년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고학년은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추천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1~2학년 저학년 대상의 '빌드업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탐색할 수 있도록 AI 기반 진단 도구, 1:1 심층 상담,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진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JJ진로부트 동아리' 운영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3~4학년 고학년을 위한 '점프업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 진단을 시작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 계획 수립, 직무 중심 교육, 경력개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프업 프로젝트'는 활동 참여도에 따라 최대 연 100만 원까지 활동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취업 준비와 동시에 경제적인 동기부여까지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4학년 재학생과 졸업 예정자를 위한 'Dream-JOB 인재풀'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추천 채용 연계, 면접 정장 대여,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2025년 1학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 학생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징 및 기대효과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올해에도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4일 수요일 하림미션홀에서 개최되는 'JJ직무박람회'입니다. JJ직무박람회는 단순히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채용박람회와 달리 넥스코리아, 포스코, 삼성전자, 본아이에프, 국민연금공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우리 대학 출신 선배들이 참여해 후배들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취업 선배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한 슈퍼스타들로, 본인들의 취업 준비 과정과 실무 경험, 조직문화 적응팁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취업 노하우를 전수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현장 채용설명회나 채용 면접 기회도 함께 제공하기에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탐색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행사입니다.

**Q5. 재학생 외에도 휴학생이나 졸업생, 지역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에게까지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이 다양한 만큼 각 대상에 맞춘 전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강점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졸업생 특화 시범 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졸업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구직 스킬 강화는 물론 취업 준비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구직 스트레스 관리, 1:1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휴학생과 지역 청년들 역시 진로상담, 취업 특강,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설명회, 현직자 멘토링 등 외부 연계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도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열린 취업 지원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6. 센터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가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2025년에는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더욱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JJ 취업 서포터즈(10기)'와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4기)'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활동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JJ 취업 서포터즈'는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과 청년 고용정책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널리 알리고, 간식 이벤트, 청년정책 온라인 설명회, SNS 콘텐츠 제작 등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활동을 통해 여러분께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에도 기여하는 소통 채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은 기업 탐방, 채용설명회, 기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현장 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도내 우수기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기업은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고 학생들은 실질적인 채용 연계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취업에 활용 가능한 생생형 AI 교육, 드론 운용 전문가, 디지털 금융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진로 취업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이고 밀착된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7. 마지막으로 센터 이용에 있어 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취업 준비의 시작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41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모의 면접까지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전문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사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 사진 | 김보라 기자(kbr3163@jj.ac.kr),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성경 인물> 옷감 장사 루디아의 헌신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으로, 당시 귀족과 부유한 계층에서 자색 옷감을 선호하였으므로 그녀가 부유한 상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던 중 강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루디아의 믿음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했다. 그녀의 섬김 덕분에 바울과 제자들은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드물던 빌립보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스타센터 2층 도서관 '루디아선교센터'를 완공하여 4월 8일 개관 예배를 드렸다. 이 공간을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기 중 화, 목요일에는 소그룹실에서 성품 채플이 진행될 예정이다. '루디아선교센터'를 통해 루디아의 섬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선교지원실 이유민 행정원

## <자비와 긍휼>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기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간다. 각자의 질서가 달라서 개개인이나 하나의 우주처럼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 우주들이 충돌하지 않고 원수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공존하는 비결은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용납하고 충분한 공감의 형성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는 자비와 긍휼이다. 이런 자비와 긍휼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주에 질서를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시 145:9).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선대와 긍휼에서 벗어난 피조물은 없다.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의 자비와 긍휼은 더욱 위대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인격과 삶의 결을 맞추면 평화의 하나됨이 형성되고, 그 성품에서 어긋나면 그 하나됨이 깨어진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눅 6:36).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도 긍휼과 자비를 포기하지 말

아야 하는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사 54:8).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가 합당한 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잠시 거두신 이후에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자비와 긍휼은 인간의 실력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비와 긍휼은 원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은 자비와 긍휼의 더 큰 수혜자다. 이는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야고보의 무서운 경고에서 확인된다(약 2:13). 즉 자비와 긍휼의 실천은 심판에서 해방되는 비결이다.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잠 11:17)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자가 된다. 즉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신의 자비까지 보이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자신의 긍휼까지 베푸시니(시 18:25-26) 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 예배안내

###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교직원, 혹은 학생 중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 기도문

###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곳 전주대학교에서 청년의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5년의 봄은 유독 아름답고 유독 옹골찬 듯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에는 벚나무의 꽃봉오리들이 아기주먹처럼 영글었습니다. 이번 봄만큼은 아쉬운 벚꽃 만개 시간이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꽃송이들이 꼭 권 아기주먹처럼 힘을 합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치 주님의 진한 사랑의 눈빛 같아 가슴이 찡해집니다. 사리살짝 흘 뿌리는 하얀 꽃비는 또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요.

주님께서 이처럼 세심히 돌봐주시는 전주대학교에는 이번 봄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학생들은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많은 이들이 힘쓰고 애써 섬겨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이 어찌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로서는 다 이룰 수 없었을 많은 일들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만남과 배움 속에 꿈꾸고 성장하여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가르치는 이들은 더 참되고 빛난 것을 가르칠 지혜와 사랑을 원하며, 일 맡은 이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이들을 채울 수 있는 풍족한 자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간구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연정 실장  
(선교지원실)

## 기자칼럼

## 오픈AI 서비스와 침묵하는 사회, 침해되는 윤리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카카오톡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친구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는 알림이다. 업데이트한 프로필 목록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이하 지브리)'를 연상시키는 그림들이 줄지어 등장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중심에는 오픈AI 같은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있다. 오픈AI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본격적으로 출시한 이후, 단 일주일 만에 7억 개의 이미지가 생성됐고, 유료 구독자 수는 450만 명이나 증가했다.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이미 5억 명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78.5% 증가이자 같은 기간 월 앱 사용 시간도 63.5% 증가한 수치로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생성형 AI 이미지 기술은 특정 작가나 스튜디오의 화풍을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픈AI 측은 '전체 작품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힐 뿐, 저작권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그림체를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작가의 철학과 세계관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브리'의 수장이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여러 작품에 걸쳐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나 AI는 그의 화풍을 빌려 전쟁을 미화하는 이미지까지 만들어 창작자의 정신과 가치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는 오직 오픈AI만의 책임일까? 가짜 뉴스 생성,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AI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오픈AI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가 출시된 이후부터 2025년 4월 6일까지를 기준으로, 국내 언론에서 'AI 범죄'를 제목에 포함

한 뉴스는 1만 2,296건에 달하며, 'AI 악용'을 언급한 기사도 4,964건에 이른다. 이처럼 AI 기술의 부작용과 사회적 위험성은 꾸준히 기사화돼 왔으며, 이는 오픈AI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끊임없이 시사했다.

그러나 사회와 대중은 이러한 문제에 침묵해 왔다. '창작자의 권리', '문화 자산에 대한 존중', '기술 사용의 윤리성' 등 본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재미'보다 뒷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지브리 풍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창작자들의 권리나 기술 사용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재미'와 '흥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AI 기술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동안 우리는 사회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빛의 속도처럼 앞서가는 지금,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인식의 확산도 속력을 내야 한다. AI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미지들 속에서, 누군가의 권리와 철학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멈춰 서서 물어봐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나고.

## 바둑판 위의 철학: '승부'와 삶의 본질

바둑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삶의 철학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깊이 담아내는 고유의 매력을 지닌 스포츠다. 이러한 한국 바둑계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는 두 거장이 있다. 바로 조훈현과 이창호다. 이들은 바둑판 위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영화 '승부'는 한국 바둑 역사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했던 순간을 스크린에 담아낸 작품이다. 바둑이라는 고요하고 지적인 스포츠를 배경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이 영화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 삶의 본질을 묻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는 한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두 인물, 조훈현 9단과 그의 제자 이창호 9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조훈현은 한국 바둑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끈 인물로, 한국 바둑을 상징하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바둑을 배우며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고, 이후 세계 대회를 제패하며 한국 바둑계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제자가 바로 이창호다. 이창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조훈현의 눈에 띄었고, 스승의 지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창호는 스승인 조훈현을 위협할 만큼 실력을 키웠고, 결국 둘은 공식 대국에서 맞붙게 된다. 이 대결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변화를 불러왔다.

배우 이병헌은 조훈현 9단 역을 맡아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독과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조훈현은 단순히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바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 인물이다.

반면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 9단은 스승에게 배운 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며 성장한다. 유아인은 이창호 특유의 침착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영화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영화 '승부'는 단순한 승리와 패배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승부란 누구와의 싸움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는 단순히 바둑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성장을 조명하는 메시지다. 감독은 영화 속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용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만의 길 찾기에 주목한다.

## -패배를 인정하는 용기

연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지만 패배를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이야기한다. 이는 패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자기 자신과의 싸움

진정한 승부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강조한다. 외적으로는 서로와 경쟁하지만, 내적으로는 각자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간다. 조훈현은 최강자로서 자존심과 한계를 극복해야 했고, 이창호는 스승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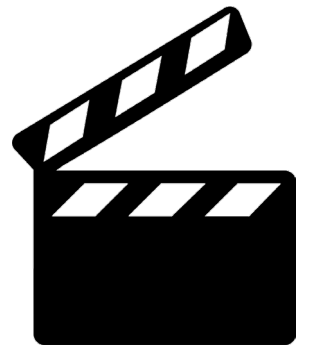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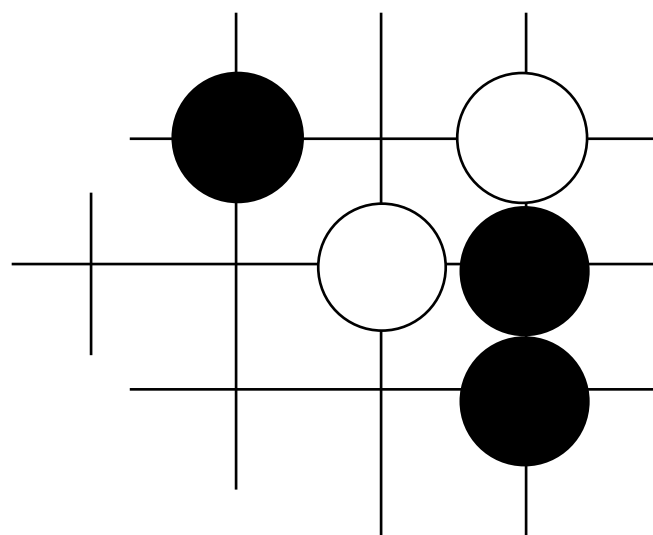
## -자신만의 길 찾기

이창호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독립해야 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화 '승부'는 승리보다 패배 속에서 빛나는 인간다움과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삶이라는 커다란 바둑판 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관객에게 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스스로와 싸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감독: 김형주  
상영 시간: 115분  
개봉일: 2025.3.26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  
장르: 드라마, 스포츠, 시대극

## 교수칼럼

## K-pop 아이돌의 노력 그리고 나의 성찰



고재형 교수  
(문화융합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다양한 아이돌과 함께 일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이었다. 뮤직비디오 기획 회의를 위해 모인 한 장소,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항상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두운 건물 한켠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힘찬 기합 소리에 맞추어 안무 연습을 하는 연습생들이 있다.

연습생들은 잠을 뒤로한 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안무연습에 몰두한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강렬했다. 내가 그들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던 그 순간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 후, 한 방송국에서 그 연습생들이 톱스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날 밤 그들의 땀방울이 결국 그들을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톱스타가 된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나는 종종 '노력으로 재능을 이겨낸 아이돌'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곤 했다. 실제로 그 문구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아이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돌이켜보면 아이돌 나이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시기에 나는 그 저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다. 그 나이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불평을 늘어놓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런 나 자신을 떠올릴 때, 아이돌 친구들의 모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인생을 걸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 처럼 나도 더 이상 내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비로소 나만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비슷한 경험은 나 자신에게 느낀해졌던 또 다른 시기에 찾아왔다. 일손에 익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안주하고 있었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도전은 잠시 멈추었고, 마치 내가 최고인 양 스스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늦

은 밤 회의를 위해 팀원들과 모였다. 새 아이돌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회의는 계속되었고, 프로젝트가 완성되어도 회사에서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재작업을 한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한계에 달했다. 왜 이 정도까지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때 아이돌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밤을 새우며 자신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쏟아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가 기계처럼 찍어내듯이 했던 일이 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은 후, 나는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맡은 작업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그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나에게도 대입을 해본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도 뒤쳐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당시 스스로에게 만족했던 나는 당연하게도 점차 뒤쳐지고 있었다.

영화 라라랜드의 'City of Stars'라는 곡이 떠오른다. 곡의 가사 중 자신을 비취주지 않는 별에게 투정을 부리는 구절이 있다. 묻고싶다 '투정을 부릴 만큼 처절하게 노력하였는가?'

'City of Stars'의 제목과 가사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대신해 창문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있다. 그 불빛들은 늦은 밤에도 꺼질 줄 모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을 상징한다. 빛나는 창문 불빛이 지금 시대의 별 빛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내가 느꼈던 이러한 깨달음과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꼈으면 한다. 지금 흘리는 굵은 땀방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땀방울들은 나를 반짝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반짝임은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별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별이 되는 중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 기자칼럼

## 콘텐츠 과포화 시대, 도파민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선택



김소리 기자  
(sorikong02@jj.ac.kr)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유튜브 쇼츠, 틱톡, 릴스 등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진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화면을 넘긴다. 이제 콘텐츠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고리즘으로 완벽히 추천해 주는 스마트 시대. 우리는 정말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도파민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상 콘텐츠 빨리 감기 시청 습관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9%는 '빨리 감기'로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도 배속할 정도로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지며 도파민 중독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더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고,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이를 통한 강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는 이러한 도파민 중독을 가속화한다. 몇 초 만에 하나의 영상을 소비하고, 다시 다른 영상을 보는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분석한 취향에 따라 가장 자극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마주할 뿐이다.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긴 호흡의 콘텐츠를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책을 읽거나 영화 한 편을 끝까지 감상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되고, 인내심이 부족해진다. 깊이 있는 정보를 학습하기보다 짧은 클립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콘텐츠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자극적이고 단순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유익한 다큐멘터리나 철학적인 영화보다,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짧은 클립이 선호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깊이 있는 경험'이다.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며 등장인물의 감정에 몰입하고,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험이 줄어든다. 대신 몇 초 만에 소비할 수 있는 짧은 콘텐츠가 우리의 감각을 지배한다. 또한 스스로 생각할 시간, 나만의 속도로 무언가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여유도 사라지고 있다. 콘텐츠는 계속 쏟아지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내 생각은 점점 흐려진다.

이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돌아봐야 할 때다. 알고리즘이 주는 콘텐츠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아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작정 영상을 넘기지 않고 나에게 유의미한 정보인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며 의식적인 콘텐츠 소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 한 편을 온전히 감상하며 긴 콘텐츠를 경험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일정 시간 동안 SNS나 유튜브를 끄고, 현실의 경험에 집중하는 일명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보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있다. 콘텐츠에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선택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소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콘텐츠에 끌려가기보다는 내가 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선택할 때,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다. 영상의 길이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듯, 콘텐츠 과포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 Jeonju University's Subsidiary "Dareun OReum" Signs MOU with Woorimil Farming Cooperative

duced agricultural goods. The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introduce healthier and more distinct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to consumers. Jeonju University's Technology Holdings Company announced that its subsidiary, Dareun OReum Agricultural Corporation (CEO Jieung Kim; hereafter "Dareun OReum"),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pril 2 with the Woorimil Farming Cooperative (CEO Jiho Shin; hereafter "Woorimil") to collaborate on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Korean liquor.

This agreement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Innovative Research-Based Enterprise Establishment Project," promoted by the Jeonbuk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Headquarters. The MOU outlines a strategic partnership focusing on raw material supply and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collaboration for new product development in the traditional liquor sector.

Founded in 2003, Woorimil aims to provide healthy, locally grown food products using Korean wheat varieties known for their resistance to pests. As a certified sixth-industry farming cooperative, Woorimil has expanded its product line to include whole wheat flour, frying flour, pancake flour, whole wheat noodles, and buckwheat noodles, thereby broadening its presence in the food industry.

Dareun OReum, a faculty startup led by Professor Jieung Kim from the Department of Agro-Food Business at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specializes in the development of processed food products and fermentation technologies using Korean agricultural ingredients. Notably, the company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by winning a Bronze Award at the 2024 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 (IWSC)—one of the world's top three liquor competitions—for its traditional liquor brand "Haruju."

Through this MOU, the two organizations plan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raditional liquors made from domestically p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 School of Business Hosts Successful Orientation for 'beSTAR Program: Financial Institutions Track, 1st Cohort'

On Wednesday, April 2, the School of Business at Jeonju University (President Jinbae Park) held a successful orientation session for the inaugural cohort of its beSTAR – Financial Institutions Track program in Room 201 of Liberty Hall.

This new program is designed to support students aspiring to work in the financial sector by offering specialized training and practical experience. During the orientation, participants were introduced to the goals and main features of the program.

The beSTAR –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 offers students practical on-site training at financial institutions, special lectures and mentoring sessions by current professionals, assistance in obtaining relevant certifications, and personalized employment consulting. By connecting students with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program aims to strengthen their field-based competencies.

More than 40 students from a range of academic backgrounds and year levels attended the session, demonstrating strong interest in the program. A lively Q&A session further reflected the students' enthusiasm and high expectations.

Dean Hyojin Kim of the School of Business stated, "We will provide full support so that our students can gain the practical skills and expertise required by the financial industry. We hope this program becomes a stepping stone for many successful job placements in the financial sector."

In addition, starting in the 2025 academic year, the School of Business will implement an integrated college admissions system. This will offer new students the opportunity to explore and experience various academic majors before selecting the one that best suits their interests.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 Startup Support Center Selected as Implementing Institution for the '2025 Jeonbuk Innopolis Campus Regional Talent Development Project' for the 9th Consecutive Year

Jeonju University (President Jinbae Park) has been selected for the ninth consecutive year as an implementing institution for the 2025 Innopolis Campus Regional Talent Development Project, hosted by the Jeonbuk Institut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und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pecial Zone Promotion Foundation.

Launched in 2016, this initiative aims to establish a technology-based local employment and startup ecosystem and to lead regional innovation. The project enhances the capabilities of local youth and aspiring entrepreneurs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Innopolis Campus programs. It also seeks to expand and internalize employment and startup networks within the Jeonbuk Special Zone.

Key programs include the discovery and nurturing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industries, along with a variety of employment and startup education courses. These programs are designed to help young talent acquire the practical skills needed for successful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dditionally, the project supports the initial growth of promising deep-tech startups by providing prototype development funding and other resources. This year's initiative will also include specialized program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es, a survey of local corporate employment needs, and strengthened internship and industry-specific training programs.

By building a collaborative network linki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public technology with startups, the project aim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he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job readiness and provide field-based education aligned with real industry needs, thus contributing to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will also help address local labor shortages and promote job creation.

Sangwoo Lee, Head of the Innopolis Campus Project Group, commented, "As a hub university within the Jeonbuk Special Zone, we will strive to create a sustainable startup ecosystem by fostering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and talent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local industries. We will also reinforce our practical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to invigorate the local economy."

This project is spearheaded by the Jeonbuk Institute of R&D Zone at the Jeonbuk Tech-Biz Center, targeting deep-tech entrepreneurs and job-seeking youth in the region. Through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aligned with local industries, it aims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 The Institute for Korean Classics at Jeonju University (Director Jooseung Byeon)

has released the 16th volume in its research series, titled Jeonbuk Classical Poetry in Joseon Hwanyeo Seungnam.

Renowned for its leadership in classical transl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the Institute presents a newly translated collection of classical poetry composed by Confucian scholars from the Jeonbuk reg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ource text, Joseon Hwanyeo Seungnam, was compiled by Byeongyeon Lee (1894–1977), a Confucian scholar from Gongju. Following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1914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Lee documented the geography and cultural history of 129 counties, out of Korea's 241, intended to serve as a modern replacement for traditional regional gazetteers. His work is seen as a continuation of Korea's geographic literature tradition following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and is valued for affirming Korea's geography, history, and cultural identity during a time of colonial suppression.

Co-translated by Professor Jooseung Byeon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Content) and Dr. Byeonggu Jeon (Korean Classic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e volume features newly translated poems from 13 counties in Jeonbuk. The translators identified lesser-known authors, cross-referenced poem titles with other documents and anthologies, corrected textual errors, and added extensive annotations to aid reader comprehension. The project spanned three years of meticulous editing and revision to ensure scholarly rigor.

Professor Byeon remarked that while their earlier translation of Yeoji Doseo emphasized gazetteers as valuable records of regional history, this new work brings to life the landscapes that shaped poetic imagination and highlights locally grounded literary figures. He added that the Institute continues to collect and study historical materials from the region, with the hope that such resources will support the development of future regional cultural content.

articl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uptoillie20@jj.ac.kr)

## 携手外国留学生，共促全北全球旅游



全州大学（校长朴珍培）与全北观光营销综合支援中心（代理中心主任：金玉英，音译）于3月31日在全州大学国际交流院签署了合作协议，旨在通过外国留学生的参与，激活全北地区的旅游产业，提升其全球吸引力。

此次业务协议的核心内容是向在校外国留学生介绍全北地区优质的旅游资源，并通过策划和运营多样的体验项目，使其在亲身参与的基础上，通过全球社交网络广泛宣传全北的魅力，助力地区旅游品牌的国际化。

全北观光营销综合支援中心计划与全州大学的外国留学生合作，共同制作并发布具有吸引力的旅游内容，利用社交媒体平台向国内外游客进行宣传推广。此举不仅有望提升全北作为全球旅游目的地的品牌价值，也将进一步扩大吸引海外游客的效果。

代理中心主任金玉英表示：“希望外国留学生通过亲身体会全北地区丰富的旅游资源，发挥他们在全球网络中的传播力量来推广宣传全北地区的旅游资源。此次合作将为激活地区旅游市场、促进外国游客增加，并带动地方经济的发展。”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也强调：“外国留学生不仅要集中于学习，也要在传播地区文化方面发挥大使作用。我们将全力支持留学生融入本地社会，帮助其成长为具备全球视野的人才，同时也将致力于推动地区与大学的协同发展。”

目前，全州大学正以发掘优秀全球人才与国际化能力为基础，持续推进与地方政府及机构的多元合作，积极构建地区与大学共赢的发展平台。

## 全州大学与全北特别自治道经济通商振兴院就业中心签署合作协议

-积极支援外国留学生在地区扎根与就业，配合法务部“地区特化型签证”政策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3月28日与全北特别自治道经济通商振兴院就业中心（中心主任廉京亨，音译）签署业务协议（MOU），正式启动协作机制，旨在提升外国留学生的就业能力，支援其在全北地区的定居与发展。

此次协议与法务部将于2025年正式实施的“地区特化型签证（F-2-R）”政策相呼应。该制度针对在人口减少地区的大学毕业、具有优异成绩和韩语能力、并有意愿留在韩国就业的外国留学生，提供长期居留签证，为他们在地区社会扎根和进入中小企业等领域工作提供制度性支持。

根据协议内容，双方将在多个领域展开合作。它包括联合开展提升外国留学生就业竞争力的各种项目；扩充就业与定居相关的咨询及信息服务；举办地区特化型签证（F-2-R）相关政策的宣传与说明会等活动。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表示：“通过与地方政府合作，我们将积极培养具备全球视野的外国人才，并为他们提供扎根本地、实现就业的支援体系。这不仅有助于地区社会的持续发展，也将进一步提升我校作为国际化大学的影响力。”他还补充说：“将来地区特化型签证（F-2-R）有望发挥更大的作用。”

就业中心主任廉京亨也指出：“希望通过此次协议，使外国留学生能够在更稳定的环境中完成学业并顺利就业，缓解地区企业的人才短缺问题。特别是在人口减少地区，外国留学生可以在所有产业领域自由就业，这将为地区发展注入新的动力。”

目前，全州大学已有74名外国留学生通过包括“地区特化型签证”在内的多种政府制度，成功在全北地区的中小企业等单位实现就业，学校也将持续强化就业支援体系，帮助更多留学生在全北地区稳定发展。

# 2025 JJ 신입생 Major Fair

## 전공, 체험으로 만나다

일시 및 장소 | 2025. 4. 30 (수) 13:00~18:00 하림미션홀  
대상 | 2025학번 신입생 및 전과·편입 희망 학생 등



**16:00~16:05**

개회식 및 내빈 소개

**16:05~16:15**

박진배 총장 축사

**16:15~16:20**

전공 선택 안내

**16:20~16:55**

축하공연

-태권도학과 '싸울아비'

**13:00~18:00**

전공 상담 & 체험 부스  
(상시 운영)

### 타임테이블